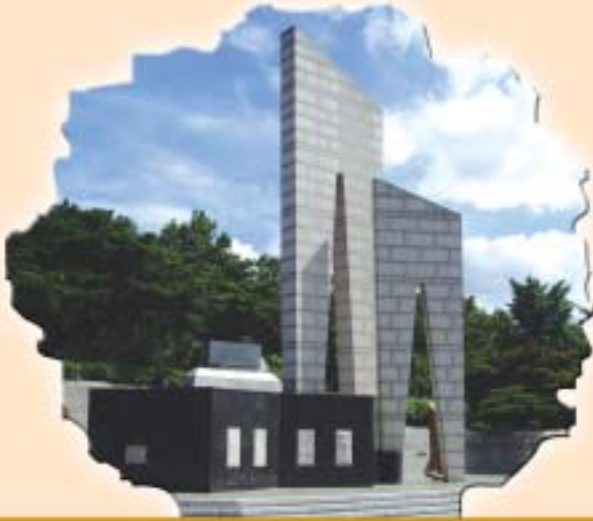


2011 1



햇볕

2·28 제10권 4호 통권40호

시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미래

특집 제10차 2·28민주포럼-2·28민주운동 과제와 전망
2·28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제1회 2·28고교생마라톤대회 개최

특별기고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 관련 관계관 협의회 개최
현재진행형인 '2·28'을 위하여-지난 10년간의 글짓기를 돌아보며
다시 읽는 「문예광장」
대구국채보상기념관 건립 기공식



사단
법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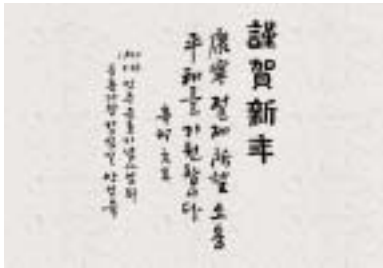
康寧절제 소망 소통
 平和를 기원합니다

후보 유보

(사) 2-28 민족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김범일 안인숙



小岩 曹泓根 作



蕙汀 柳永喜 作

제10권 4호 통권 40호 겨울

발행인 / 안 인 옥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11년 1월 15일

발행 / 2011년 1월 15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서정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매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053)474-9000



사단
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題字 : 蕙汀 柳永喜

2011년 1월 제10권 4호 통권 40호 겨울

| | | | |
|--|---------------|----|---|
| | 시론 | 04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미래 / 안인옥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 | 2·28특집 | 08 | 제10차 2·28민주포럼-2·28민주운동 과제와 전망 |
| | | 26 | 2·28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제1회 2·28고교생마라톤대회 개최 |
| | 특별기고 | 28 |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 관련 관계관 협의회 개최 |
| | | 32 | 현재진행형인 '2·28'을 위하여-지난 10년간의 글짓기를 돌아보며 / 이태수 시인 2·28 글짓기 공모 심사위원장 |
| | | 34 | 다시 읽는 「문예광장」 / 손병현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 | | 40 | 대구국채보상기념관 건립 기공식 |
| | 문예광장 | 41 | 시·최제우 / 민병도 시조시인 |
| | | 42 | 수필·흥부 신발 / 송복련 수필가 |
| | 2·28일지 | 44 |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 편찬위원회 |
| | | 44 | 대구 현대오케스트라에서 2·28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 | | 45 | 2·28 일지 |
| | | 46 | (사)산학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 거행 |
| | | 47 | 제1회 대한민국 동부민요 전국경창대회 개최 |
| | | 48 | 2010년도 회원가입 현황 |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회안내

-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미래



안 인 옥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1. 과거 활동상

일제 강점 36년 간의 핍박과 한국전쟁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파탄 속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국이 혼미하고 백성들이 질곡에 빠져 삶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하에 자유당 정권마저 온갖 부정이 자행되고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권력 독점과 정권 연장에 혈안이 된 나머지 부정선거 운동이 극치에 달하였음에도 기성세대들은 반항의 말 한마디 행동 한번 표출하지 못 했는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의 부정·부패, 유린당한 백성들의 인권과 자유 등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목숨걸고 분연히 일어

켰던 숭고한 정신이 전국으로 번져 3·15 의거와 4·19혁명의 씨앗이 된 대한민국 헌정상의 민주화운동의 효시가 2·28대구 학생민주운동입니다.

2·28민주운동은 군사정부의 온갖 탄압과 정치적·사회적 제약의 긴 암흑의 터널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까지 하였고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져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도 급기야는 2010년에 선 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인동초처럼, 2·28민주운동정신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민주화정신이 조그마한 물줄기가 되어 이 강산에 흘러 왔습니다.

대구·경북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임에 올곧은 선비들이 지역 정신을 굳건히 가꾸었고, 충신·열사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요, 또한 ‘화랑’의 정신이 흐르고, 3·1운동정신이 흘러, 나라를 구하기 위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을 때 한 여성단체가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민이 되어 세계 상등(上等)국가”가 되기를 간절하게 외친 그 정신들이 우리들의 피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국정신과 정의·자유를 숭상해 온 선인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대구 학생들의 정신은 그들만의 것일 수 없고, 대구·경북인을 초월한 전 국민의 정신으로 발향됨이 필연적이었습니다. 2·28민주운동정신은 대구·경북인의 전통정신 속에 뿌리를 내리고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50년을 되돌아 회고해 보면, 2·28민주운동은 전국으로 번져 3·15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져 자유당정부의 막을 내리게 한 민주화운동의 효시였고, 1961년 명덕로 터리에 2·28민주운동정신을 상징화한 2·28기념탑이 건립된 이후로 매년 2월 28일 기념일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계기 때마다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념식과 결의를 다지는 집회 장소로 매김하였습니다.

1991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초대 회장 장주효 선임, 문민정부 수립 후인 1995년 제35주년 기념행사가 대

대적으로 개최, 기념심포지엄 개최, 1997년 제37주년 기념문집 발행, 1998년 제2대회장 최용호 선임, 1999년 2·28민주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 김대중 대통령 축하 메시지, 문희갑 대구광역시장의 축사에서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발족을 선언, 2·28민주운동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창립총회 개최, 공동의장으로 문희갑 시장과 최용호 교수 취임, 40주년을 계기로 2·28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여 2000년 『2·28민주운동사』(3권) 출판,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40주년 기념식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참석,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 공동의장 문희갑 시장과 3대 홍중흠 취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정, 2001년 ‘2·28민주포럼’ 창립, ‘2·28기념중앙공원’ 기공, 2·28회보지 『햇불』 창간,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 공모 시상식, 2·28대구민주화운동글짓기 공모 입상작품집 발행, 2002년 대구광역시장 조해영 공동의장 취임, 2003년 제4회 공동의장 이완식 취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정관 1차 개정, 21세기 민주포럼 개최, 2004년 ‘2·28기념중앙공원’ 개원, 2005년 제5대 공동의장 김정길 취임, 김운식 시인 시비 ‘2·28기념중앙공원’에 건립,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공포, 2006년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공동의장 취임, 2007년 제6대 공동의장 류진춘 취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정

관 2차 개정,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 공모 입상작품집』 발행, 기념관 건립 각계 건의, 2009년 제7대 공동의장 안인옥 취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현 남산동), 제8차 2·28민주포럼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회원 배가 운동,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법률 10007호), 제50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2·28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학술대회,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행, 2·28기념관 건립 추진(부지 대구명덕 초등학교 내), 조감도 공모 선정·설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2·28정신 계승과 회원가입 독려), 제10차 2·28민주포럼(‘2·28민주운동 과제와 전망’) 개최 교원·학생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 추진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햇볕』지(창간호~39호)의 ‘시론’은 학계·정계·사계 저명인사 등 33명, ‘기획특집’ 일백여 명, 문예광장 75명 등 인사가 투고한 글은 지역 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정신적 양식을 드높였고,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 공모(첫회~10회)에 초·중·고생 응모 8,281명, 입상 1,989명, 입상작품집 10회 발행은 학생·교원·학부모들에게 2·28민주운동정신 각인과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회원 배가 운동 전개로 2010년 현재(1999년~2010년)

47,143명(정회원·학생회원·준회원)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 미래 지향점

2·28민주운동 세대가 대구·경북인 나아가 전국민과 함께 50년 간 가꾸어온 2·28민주운동정신 계승·발전 관련 사업이 간단없이 추진되어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2·28민주운동의 순수성·역사성·당위성이 기본정신의 근간이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2·28민주운동 반세기 해를 맞은 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5·18민주항쟁 3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 등의 사건들은 국가·민족이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삶의 상흔을 씻을 수 없는 일들로 우리들의 애국혼을 일깨워 주는 사건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겪은 쓰라린 과거 역사를 크게 되새기게 하는 때에 지난 3월 26일 북한이 ‘천안함’ 피격 만행으로 천안함 용사 46명이 순직하였고,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여 민간인 살상과 각종 시설들을 파괴시켰습니다. 동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런 반면 11월 11·12일 양일 간 서울에서 G20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4회 연속 2위의 위업을 달성하여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Global)시대에 부응해야 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기본정신과 해야 할 일들을 염두에 두고 지난 50년을 되짚어보고 미래를 챙겨 보는 것이 2·28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오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2·28민주운동정신은 대구·경북인의 정신으로 나아가 국민정신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대구·경북인의 정체성 확립과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내면화시켜 지역애의 불을 지피도록 하는 것이 우리세대의 소명입니다. 2·28민주운동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관련 교과서에 그 내용이 수록되고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 정신이 학생들에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2·28민주운동이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전국 민주화기념사업회 반열에 자리매김하였기에 그에 걸맞게 기념회관을 훌륭하게 건립하고 학생·교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애·조국애 수련의 도량 기능을 확충시켜야 할 것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1세기 창의력을 가진 G(Global)세대를 육성하기 위

해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토록 하고, 투철한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시교육청 차원과 학교 자체의 자료 개발, 학교 급별 관련 교과서에 '2·28민주운동' 삽입, 학교 급별에 따른 보충지도자료 개발, 교원·전문직·행정직 연수 강화, 학생 동아리 활동 강화, 계기교육 강화, 2·28민주운동 역사유적지 및 기념물 탐방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2·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 읽기, 초청인사 특강, 2·28민주운동 관련 동영상, 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문·관람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 TV, 사회교육 기관,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망됩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기구정비, 다양한 연구를 위한 연구소 기능 활성화, 기념회관의 효율적 운영(교육·자료센터화), 사료관 기능 확충, 2·28민주운동정신 세계화, 다양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이밖에도 절체절명의 일들이 있음에 글로벌 시대에 대처해야 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많은 사람과 단체들과 관계 지움과 소통으로 이 나라가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데 핵심체가 되고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게 강요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10차 2·28민주포럼

2·28민주운동 과제와 전망

2010년 11월 20일 본회가 주최한 제10차 2·28민주포럼이 대구은행본점 3층 회의실에서 2·28회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28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점검하고 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 이를 계승·발전시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방향·과제·대책을 모색하는 학술모듬회의로 진행된 이날 포럼 발표,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본다.

- 개최인사: 안인욱(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좌장 사회진행: 최용호(2·28고문, 산학연구원 이사장)
- 기조연설: 김태일(영남대학교 교수)
4·19혁명의 출발, 2·28 민주운동의 의의와 계승
- 발표: 곽경숙(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2·28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방향
- 발표: 이동관(매일신문 문화부 차장)
2·28민주운동기념관의 운용 방안
- 지정토론: 주응영(대구교육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중흠(2·28고문),
김일수(성균관대학교 교수)

개회인사: 안인욱(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2010년 경인년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감연히 분기했던 2·28민주운동 선 돌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들은 2·28민주운동 반세기의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인 오늘, ‘2·28민주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되돌아보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경술국치 100년, 한국전쟁 60년이 되는 해로 과거 우리민족이 겪은 돌이킬 수 없는 통한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해로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암울했었고 경제적으로 피폐했던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맞서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를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나 그 열기가 급기야는 자유당 정부를 무너지게 하였고 제2공화국을 탄생하게 하였으나 30년 간의 군사정부로 인해 2·28민주운동이 시민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2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마저도 팽개쳐버렸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990년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발족되고, 2001년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법인체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념사업회가 “2·28민주포럼 창립, 2·28「헛불」 창간,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공모, 입상작품집 발행, 2·28기념중앙공원 개원, 김윤식 시비 건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2·28민주운동 삽입, 2·28민주운동교육용교재 발간, 2·28기념회관 건립 추진, 2·28민주운동 50년 발간 추진, 교직원 특강, 회원배가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2·28민주운동 50년을 반성·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한 과제와 전망, 학생교육, 기념관 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김태일 교수님의 기조연설, 광경숙 교육국장님의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의 방향, 「매일신문사」 이동관 문화부 차장님의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에 대한 고견은 미래 본회의 사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G시대 세계인이 될 학생들에게 국혼을 되살려 국격을 높이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국가관을 길러 애국·애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세계 선두 국가에 진입토록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육혁신이 이룩되고 제반 여건 조성과 교육방향과 대책이 수립되고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요망됩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자리를 함께하신 귀빈, 시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좌장 사회진행: 최용호(2·28고문, 산학연구원 이사장)

오늘 2·28 제50주년을 맞이하여 포럼을 통한 2·28민주운동의 의미와 큰 뜻을 되새겨보고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기념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교수님의 기조연설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생략)

기조연설: 4·19혁명의 출발, 2·28 민주운동의 의의와 계승
김태일(영남대학교 교수)

1

‘4·19혁명’이라는 명칭에 대해 근년에 와서 학계 일각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이 명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19혁명이라는 이름은 1960년 봄에 전개된 혁명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둘째, 공간의 문제입니다.

셋째, 주체의 문제입니다.

넷째,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4·19혁명이라는 명칭보다는 ‘1960년 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박영신 연세대 사회학과교수) 2·28대구민주운동을 조명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1960년 2월,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분연히 일어나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2·28대구민주운동으로서는 이 혁명운동이 4월-서울 지역-대학생 계층으로 좁게 상징화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봄에 일어난 혁명운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혁명운동의 출발(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이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여덟 개 국·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였습니다.

2·28은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정부에 저항한 민주시위였습니다.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단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28이 숭고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처음’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모두 포기하고 있는데 2·28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2·28의 뒤를 이어 마산, 부산, 대전, 충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저항 시위가 일어나 4월 19일 서울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 힘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28은 4·19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부릅니다. 2·28, 3·15, 4·19는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혁명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2

대구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4·19혁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2·28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 환경적 변수입니다.
- (2) 주체적 변수입니다.

민족의 분단이 가져온 대립과 긴장은 적대적 상호의존 작용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데 분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와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대구의 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 등교를 시킨 것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였습니다.

냉전-분단-권위주의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는 고리에 저항해서 분연히 일어난 세력은 평화-통일-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근대적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구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일찍이 등장하였느냐는 것이 설명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것이 2·28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시의 형성입니다.

둘째는 근대 교육의 보급입니다.

셋째는 매스 미디어의 보급입니다.

2·28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는 뭔가 더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유난히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야당 성향의 분위기가 말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 시위이며 4·19혁명의 출발점이었던' 2·28이 대구에서 일어난 까닭을 설명해줍니다.

3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유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당은 2월 27일, 민주당은 하루 뒤인 2월 28일에 유세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요일 등교 지시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들은 공론을 시작하는 한편 경북고,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학생 대표들은 서로 접촉을 하여 이 문제에

대해 공동 행동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월 28일, 경북고,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시가지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상고 등이 뒤를 이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대구 시내 여덟 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크고 작은 규모의 시위를 했습니다.

2·28에 참가한 학생들이 주장한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 민주주의를 살리고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권력을 배제하라”(경북고)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대구고) “학원의 자유를 달라”(사대부고) 등의 구호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권리와 가치를 쟁취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2·28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의 현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세력의 형성이란,

첫째,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한 도시 시민의 형성입니다. 195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교육의 확대, 퇴역군인의 증대, 사회의 사업화, 농촌생활의 피폐에 따른 이농인구 등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근대교육의 확대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하여 근대적 규범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은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교과과정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규범을 수용하는 통로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공민과목에서는 민주적 규범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2·28의 주체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뜻있는 교사들도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의식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확대입니다. 특히 일간신문의 발생 부수가 도시지역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도시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치적 비판의식을 길러갔습니다.

2·28 당시 대구의 주요 일간지는 『대구일보』,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시사일보』 등 4가지였습니다.

2·28의 주체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성장한 근대적 사회세력의 연대였습니다. 도시화를 통해 형성된 시민계층과 교육의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수와 의식의 증대,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4

2·28민주운동 이후, 그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은 4·19혁명을 ‘의거(義擧)’로 폄하하고 5·16을 ‘혁명(革命)’으로 선양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전의 물결 속에서 2·28의 의미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명덕 로터리에 세워진 2·28기념탑 주변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고비에, 그리고 매년 맞이하는 기념일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모여 민주화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 장소였습니다.

1961년 4월 명덕로터리에 세워졌던 2·28기념탑을 1990년 2월 28일 두류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 2·28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노력이 뒤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군부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2·28 40주년을 계기로 기념사업은 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기념사업회 조직을 정비하고, 2·28 당시 참가했던 주체 세력들이 마음을 한 데 모아 2·28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를 쓰고, 학술대회를 하고,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기념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2·28기념 중앙공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런 노력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2·28은 학술논문으로, 각종 공연예술로, 문학으로, 신문방송잡지로, 교과과정으로,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거행된 기념식은 훨씬 더 공식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 기념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해마다 다른 지역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햇불>은 수 십호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애독자들을 확보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 논객, 지도자들이 여기에 글을 실었습니다. 학술회의와 포럼은 그때그때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면서 지성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간에는 특히 2·28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된 것은 한 참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용 참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 어느 기념사업에서도 못한 훌륭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무엇보다 쾌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28의 의미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국회 본 회의에서 이해봉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어 ‘2·28민주운동’이 현행법상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앞으로 2·28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첫째는 2·28정신의 수평적 확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2·28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그것을 생활세계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28 주체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서 2·28이 바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 (2) 2·28정신의 수직적 계승입니다. 2·28정신을 구현할 후속세대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하고, 또 2·28 정신을 선양하겠다는 활동가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이 수평적 확장, 수직적 계승으로 가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 (1)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비전 연구 - 연구소 기능 활성화, 지식인 사회 참여
- (2)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 민주주의 교육센터, 사료관 설립
- (3) 여러 계층과 세대가 참여하는 조직 - 청소년 독서 동아리 등 모임 활성화
- (4) 시민사회 속에서 폭넓은 협력과 봉사 - 다양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특히 ‘생각하는 청소년’을 길러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고 차세대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8은 ‘생각이 깊은 청소년들이’ 그 시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두 분이 발표할 주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교육과정에서 2·28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큰 포부를 가지고 짓게 될 기념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연설문 내용 발췌)

발표: 2·28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방향
 광경숙(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의 필요성 제기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직후부터 30년 동안 군사정부 하에서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선양(宣揚) 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2·28민주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멀어졌고 행정기관,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학교마저 외면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

2·28민주운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3·15, 4·19 등과는 달리 국가·사회는 물론 대구시와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고 그 정신이 계승·발전되지 못함을 크게 느껴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의 실정(實情)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관련 교과에 민주주의 단원이 초·중·고 교과서에 언급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함이 필연(必然)적이라 판단되나, 현재는 초등학교 사회과 인정도서 “대구의 생활 4-1”에 “국채보상운동, 6·25전승기념관, 2·28민주운동”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고등학교 관련 교과인 한국근·현대사 김인중 교과서 6종 중 3종((주)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법문사)에는 언급되어 있을 뿐, 3종 ((주)대한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두산)에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은 학교별로 그 차가 현저하고 심지어는 전혀 교육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이 강조되다보니 학교 교육계획에서 언급되지 않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2·28민주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부족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또한 무관심 속에 2·28정신 계승 교육에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28민주운동이 법적 지위를 가졌고 기념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이제는 세계 속에서 국혼을 살려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지름길은 올바른 역사교육이요, 애국애족 정신 고양임으로 세계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한 교육혁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경북시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켜 줄 “국채보상 정신과 2·28정신” 계승 교육의 실상을 정확히 반성·평가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의 교육방향과 대책 강구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초·중·고교의 2·28민주운동 관련 교육

2·28정신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교육은 민주화정신 계승의 첫발이 될 수 있다.

영국 런던 타임스의 허그로프 기자는 1952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었고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소식을 듣고 서울 태평로에 운집한 수십만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60년 당시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이러했음에도 군사정부에 억눌려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와 교육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신 계승 교육을 방치해 왔었다. 학교 현장에도 실천적 교육이 행해지지 않았고 학교 교직원마저 무관심했었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란 단원에 언급되고 초등학교 사회과 “대구의 생활 4-1의 대구의 정신은 무엇일까?”란 소재로 언급되어 학교 현장에 소개되고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6종 중 3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 3종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시 참여했던 8개 국·공립고등학교에서는 동창회의 노력으로 학교별 계기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28민주운동사 발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 2·28민주포럼 창립, 2·28기념중앙공원 개장,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2·28회원 가입 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법률 개정, 2·28민주운동 교육교재 발간, 2·28기념 고등학생 마라톤, 2·28민주운동 학교 모범학생 표창” 등이 지방과 중앙 언론에 홍보됨으로써 2·28민주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학교의 학생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초·중·고교 교직원·전문직 대상 2·28민주운동 관련 연수

2·28민주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상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시도민의 저항 정신이 학생들의 행동에 이입되어 분출된 것이기에 2·28은 전 대구·경북시도민이 감행한 혁명의 씨앗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세일 교수는 민주주의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달 3단계에 따라 지양하는 민주주의 성격과 과제가 다르다고 하며, 1960년 2·28대구학생운동은 산업화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이었고, 1907년 대구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운동의 꿈 내지 염원을 갈구했던 것으로 참여한 한 여성단체의 선언문 말미에 “나라 빛을 갇아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민이 되고 우리나라도 세계의 상등(上等)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염원에서 움트기 시작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2·28대구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노력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2·28기념사업회가 설립된 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기념사업회와의 협의에 의해 50년이 지난 2010년이 되어서는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교감·전문직 연수과정과 중등 교감 자격 연수 과정”에 정신 교육 2시간에 2·28민주운동 정신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직속기관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계획되어 있다. 교육연수원 전 연수 프로그램에 2·28정신 교육 관련 특강 2시간이 계획토록 추진 중이며 직할기관 주관 교직원 연수·회의 시에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추진되고 있다.

■ 2·28민주운동 유적지 활용 교육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세분화되어, 교과 지식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있게 겸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중요한 주제로 2·28민주운동을 비롯한 대구의 민족운동을 들 수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2·28민주정신의 계승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적 달성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애니메이션·만화·UCC·QR코드 등의 콘텐츠를 새로운 시각에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2·28을 ‘오래 전 할아버지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된 2·28세대와 자라나는 학생들이 2·28을 통해 이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28민주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주도한 민족운동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민족운동 유적지 답사, 유적지 걷기 코스 개발, 독립운동 재현 행사 등 학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테마 소풍, 현장체험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회원가입 운동

2·28민주운동기념사업 회원가입은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대상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퇴직교직원, 현 교직원, 고등학생, 은행원, 대학교수, 일반인 등 다양하며 가입회원수가 2010년 10월 30일 현재 47,142명인데 그 중 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입회원들이 기념사업회 목적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고 정신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고등학생 중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입토록 안내해야 하고 교직원, 공무원, 은행원, 지역 인사, 기업인 중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가입토록 폭넓은 안내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 대책

1. 교육·연수·홍보 대상

- 가. 교육 대상: 초·중·고교생
- 나. 연수 대상: 전 교직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 다. 홍보 대상: 시민, 전국민

2. 대상별 교육

가. 초·중·고교생

- 1) 관련 교과를 통한 교육
- 2) 계기 교육
- 3) 초청 인사 특강
- 4) 2·28민주운동 관련 동영상
- 5) 2·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 읽기(2·28자료, 시문, 사진자료)
- 6) 2·28민주운동 관련 체험
 - 2·28민주운동 참가교 방문 • 명덕로터리 2·28기념탑 표석
 - 두류공원 내 2·28기념탑 탐문 • 2·28기념중앙공원
 - 2·28기념관 • 경상감영 • 대구시 역사관 2·28민주운동 코너
 - 구 삼덕우체국 • 대봉도서관(구 경북고교정) • 반월당
- 7) 신문사·대학도서관 소장 당시 기사 읽기
- 8) 2·28민주운동을 노래한 김윤식 시와 시비
- 9) 타지역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람(3·15, 4·19, 부마항쟁, 5·18, 6·10항쟁 등)

나. 교직원·전문직·행정직·일반시민

- 1) 연수·회의시 특강
- 2) 홍보는 언론, TV, 노인대학, 사회교육기관, 반사회지

다. 교육·연수·홍보 자료 개발

- 1) 각급 학교 교육용 자료개발: 시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
- 2) 학교 자체 개발

3)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개발

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 대구광역시 • 국가보훈처 대구지청 • 국채보상기념사업회
- 4·19혁명기념사업회 대구·경북지부 • 민주운동 단체 • 시민단체

■ 맺음말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의 실상을 분석해 보고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2·28민주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요, 헌정상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다.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진화의 바탕이기도 하다.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창의력을 가진 G(Global)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바른 역사관과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이 갖는 핵심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승화시켜 국가정체성이 투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이 당면 과제요, 이를 위해서는 학생·시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하고 노력하는 길 밖에 없음을 밝히고 싶다. (발표 내용 발췌)

발표: 2·28민주운동기념관의 운용 방안
이동관(매일신문 문화부 차장)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대구학생의거에 대해 정부에서 역사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를 기리기 위한 건물 건립이 법으로 추진됐지만 규모나 관련 시설의 분산(기념탑과 기념공원, 기념회관이 너무 떨어져 있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불가능) 등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기정사실화 된 기념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운영 부실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도출해야 하는 최선의 방안은 기념회관의 운영을 누구에 맡기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루 이틀 만에 운영을 하다가 그만둘 기념회관이 아닌 만큼 얼마나 오래 동안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전국의 다른 기념관 등의 시설이 어떻게 부실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구시의 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기념회관 건립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밝힌 주 용도는 기념도서관, 기록전시실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 설계상으로는 4개 층에 대한 배치까지 완성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따르면 기념회관은 도서관의 성격을 띤 기념관이다. 다만 어디에 무게중심이 실리느냐의 문제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나. 분명한 것은 기념관에 무게를 실을 것이냐, 도서관 운영이 주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건립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고민의 출발점은 기념회관의 위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명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해 있고 교내에 도서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서관 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학생 및 인근 주민이 연간 6천여 명이 이용한다는 것이 추산이다. 주민을 위한 편의·복지 시설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라. 따라서 기념회관은 기념시설을 주로 하더라도 도서관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자칫 기념회관 성격만 띤 경우 향후 운영이 영속성을 가지기 힘들고 이용객 감소 시 개선택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 따라서 도서관 성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관이 아닌 주민도서관 형식을 띄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문제다. 답은 시교육청이다. 2·28 민주운동이 고등학생들에서 비롯된 운동인데다 기념회관이 설치되는 곳 역시 명덕초교 부지 이내다. 게다가 초등학교 교내 도서관의 성격마저 갖고 있다면 운영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구청 직영 도서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교 부지내의 시설에 대해 교육청이 아닌 시청이 관리, 운영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인력에다 최소한의 기념회관 운영 인력만 추가하면 된다.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인력 운영의 효율 면에서도 더 우위라고 본다.

기능성 도서관을 포함한 기념회관으로 연령에 구애됨이 없는 시민들의 시설로 자리매김한다고 하지만 주 이용객은 어쩔 수 없이 초·중·고생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견학시설로만 운영할 경우 교육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과목과 연계한 견학이 되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과목의 지역사회 관련 단위 수업시 필수 견학 코스화 추진)

그러나 두류공원의 2·28 기념탑과 한일로의 2·28공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28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념 프로그램은 기념회관 밖에 운영할 곳이 없

다. 따라서 전국의 다른 시설의 운영 부실 실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내 소재 초중고생들이 1회는 반드시 견학을 다녀가야 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영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가. 학생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운영책이다.

대구시내 소재 초중고생들이 1회는 반드시 견학을 다녀가야 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나.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재미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수준에 따라 다른 교재도 필요하다.

1) 현재 교육용 교재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너무 어렵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 동기 부여가 될 수 없다. 지금의 교재는 어른들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 이런 교재를 보고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2) 대안으로 먼저 재미있어야 한다. 초등생에게는 그에 맞는 교재가 있어야 한다. 만화와 사진물 위주로 만들고 중고생에게는 글자가 더 많은 교재가 맞다. 물론 중고생 교재에도 재미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사회진행: 최용호(2·28고문, 산학연구원 이사장)

지금까지 김태일 교수님의 '4·19혁명의 출발, 2·28 민주운동의 의의와 계승'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곽경숙 국장님의 '2·28 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방향'과 이동관 차장님의 '2·28 민주운동기념관의 운용방안'에 대한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중간 생략) 여기에 대한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 주웅영(대구교육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 될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의 2·28정신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계승, 곽경숙 국장님의 미래방향 설정과 반복교육, 이동관 차장님의 기념관 운용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결국 같은 선상의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것을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문화사업을 2·28민주운동사업회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이 없으므로 대구지역에 최초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28 민주운동사업회 회원이 약 4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부자와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사박물관은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기부금이 모이면 조금씩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자연사박물관의 주위에는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청소년·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놀다가 이들 상징물에 대해서 아빠나 엄마에게 저것들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들을 데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박물관 내에는 2·28민주운동 기념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조금 전에 밖에서 가졌던 궁금한 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물관은 2·28민주사업회 회원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도 회원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2·28민주운동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계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2·28민주운동은 당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했던 민주운동이라면 오늘날 민주운동은 이와 같은 문화운동을 2·28민주운동 사업회 회원들이 최초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교육전문가에 들은 얘기인데 미래를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곧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는 3만~5만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부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박물관을 가면 어른들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들 2·28민주운동사업회 회원들은 이 일을 통하여 장래 2·28민주운동의 진성회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학습과 무한한 교수·학습자료를 갖춘 자연사박물관은 자연히 학생들을 오도록 하는 장소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이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후략)

지정토론: 홍종흠(2·28고문)

세 분의 발표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발표문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대로 “2·28은 4·19혁명의 출발이다.”에 저도 동의합니다. 2·28민주운동은 3·15, 4·19, 6월항쟁 등 우리나라 모든 민주화운동의 총체적인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국장님이 말씀하신 교육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나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의식교육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유리창문을 깨트렸다고 했을 때 왜 깬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학생들 스스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해결토록 생활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시민으로 나아갈 길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체험 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동관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8기념관은 어렵게 건립되는 만큼 잘 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2·28기념관은 당초 기념관건립사업으로 추진돼왔습니다. 그러다 도서관 기능을 겸하자는 의견이 추가된 것은 앞으로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운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더 논의 해봐야 되겠지만 2·28기념관의 운영주체는 이것이 도서관인 이상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념관 성격의 운영이 중요한 만큼 관장의 임명은 반드시 2·28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한 총체적 관리 운영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강조할 것은 2·28기념관은 장래의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한 청년운동의 거점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숙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지정토론: 김일수(성균관대학교 교수)

2·28운동 50주년을 맞아 2·28운동이 향후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건립 진행 중인 기념관 개관에 즈음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념관 설립 문제는 이미 2·28운동의 주역이 1960년대 전반기에 제기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들이 기념관 설립을 제기한 이유는 2·28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심포지움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2·28운동이 객관적인 평가와 역사적 의미를 점검하고, 나아가 운동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였습니다. 이처럼 2·28운동이 향후 어떻게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기념관과 심포지움 개최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말해 그것은 2·28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이를 운동선수에 비한다면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0주년을 맞아 2·28은 기본기에 충실하고, 근본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틀을 갖추어서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활동 방안 등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8과 관련된 사료들을 집적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자료 보존 기능과 그것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민주운동과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4·19운동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운동 진영과의 소통을 통해 2·28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사회진행: 최용호(2·28고문, 산학연구원 이사장)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2·28민주운동은 4월혁명의 단순한 도화선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자 부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4·19혁명을 ‘1960년 봄 혁명’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입니다.

둘째로, 2·28정신의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계승을 위해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공동으로 지적하셨듯이 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된 조사·연구기능의 획기적 강화가 요망됩니다. 2·28과 민주운동에 대한 자료를 끊임없이 발굴, 축적하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DB)하면서 분석하고, 콘텐츠화하며, 2·28정신을 선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2·28정신의 계승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교육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건설시 2·28체험관의 설치도 바람직스럽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개발, 재미있는 체험교육,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2·28정신관계 교육은 대구시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로 마땅히 확장되어야 하며,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기념관의 운영주체는 시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초중고생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장소,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념관을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2·28기념사업활동을 ‘기부와 자원봉사’에 의해 추진하자는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적 과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거액의 예산과 인력을 정부의 예산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지속성이 없을뿐더러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이나 뜻있는 인사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의해 기념사업회의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기념사업회가 영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럼은 정말 알차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오늘의 주제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인욱 의장님의 인사를 끝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후략)

▼ 표지 작품



서설

작가 : 조홍근(CHO, Hong-Keun)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회화과 졸(한국화전공)
 個人展 및 個人招待展 16회(88-2009 대구, 서울, 울산)
 국전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입선 등 다수 입상
 대구미술대전 우수상 및 대구미협상 수상
 한·중 및 한·일 교류전 등 해외전 다수 출품
 大邱美術大展 運營委員 및 審査委員 役임
 江原美術大展 및 嶺南美術大展 運營委員 및 審査委員 歷任
 삼성현미술대전 및 정수미술대전 審査委員 役임
 女性美術大展, 고금미술연구회 運營委員 및 審査委員 役임
 大韓民國 青年Biennale 常任運營委員 및 운영부위원장 役임
 현: 한국미협회회원. 대구미협기획위원. 대구광역시중등미술협회 자문위원.
 대구미술대전초대작가. 영남미술대전초대작가. 고금작가회회장.
 영남한국화회. 목의회. 예성회 회원





2·28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제1회 2·28고교생마라톤대회 개최

지난 2010년 10월 23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안인욱 2·28공동의장, 한국선 대구일보 사장,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최삼룡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 송춘근 경북고교장, 최교만 경북여고교장, 박윤자 대구여고 교장, 각급학교 교직원, 2·28회원, 학생,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2·28기념사업회와 대구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대구시, 경북도, 대구시교육청, TBC대구방송이 후원한 2·28학생마라톤대회는 1천2백여 명이 참가해 부정과 불의에 맞섰던 선배들의 길을 힘껏 달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북고, 경대사대부고, 대구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상원고, 대구자연과학고 등 8개교 1~2학년생들로 2·28민주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각 학교 학생대표 16명과 2·28임원들과 2·28기념탑 헌화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날 2·28기념사업회 안인욱 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2·28민주운동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2·2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선 대구일보 사장은 2·28민주운동은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그의



미가 매우크다며 잊혀져가는 2·28정신을 되살리고 올바른 학생의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과거 자유당 독재에 항거한 2·28은 영원한 나라사랑의 표상이며 자랑스런 대구의 선배 언니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고 참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최식에 이어 학생들은 출발신호와 함께 야구장을 출발 두류공원 금봉산 일대 6킬로미터를 완주하고 뜻깊은 2·28학생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각 고교 참가 학생 수: 경북고 160, 경대사대부고 212, 대구고 150, 경북여고 148, 대구여고 93, 대구공고 94, 대구상원고 101, 대구자연과학고 53) ▮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 관련 관계관 협의회 개최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불의에 맞서 항거한 2·28민주운동이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출발점이 되었고,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로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부정선거,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 등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났던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의 발로였으나, 50년 동안 법적 지위와 기념회관 마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28민주운동정신 계승교육마저 행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4일 법률 10007호로 민주화기념사업회법의 “제2조 민주운동의 정의”가 일부 법개정이 되어 2·28민주운동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기념회관 건립비도 국비로 계상이 되어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사업회에서는 2·28민주운동 정신을 2세들에게 계승·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관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일 시: 2010. 11. 25.(목) 11:30
-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 ▶ 참석자
 - 시교육청: 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총무과장, 학력증진담당장학관
 - 지역교육청: 4개 교원지원청 교육국(과)장
 - 고등학교 현장장학협의회: 4개지구 위원장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의장, 사무총장

2010년 추진

1. 2·28민주운동정신 계승·발전·승화
 - 초·중·고 학교별 관련 교과 교육 활동
 - 계기교육
2. 초·중·고의 관련 교과목에 2·28민주운동 내용 수록을 위한 중앙관계 부서(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기획과-02)2100-8725 팽주만 교육연구사-)에 공동건의 노력
3.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2·28민주운동 관련 교육을 위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교육용 교재”를 개발·발행하여 전국시·도교육청과 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협조 요청하였음.
4.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별 교육용 교재 활용을 통해,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5. 2·28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직원 대상 특강
 - 전문직·일반직 직무연수, 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지역교육청 직원 대상 특강
6.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대구의 생활 4-1 교과서에 “2·28민주운동” 첨가
7.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고등학생 마라톤 개최
 - 대구일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주최
 - 2010. 10. 23. 10:00. 대구두류공원내 운동장
8. 2010회원가입 활동

2011년 추진 계획

○ 교육청(지역교육청)협조 내용

1. 2·28민주운동정신 계승 학생교육을 위한 사전 교원(교장·교감)연수 지속적 추진
2. 교육연수원 학생수련관의 학생 수련시 2·28민주운동정신 교육(강의, 유인물, 동영상 등)
3. 초·중·고의 관련 교과목에 2·28민주운동 내용 수록을 위한 중앙관계 부서(교육과학기술부
술부의 교과서 기획과-02)2100-8725 팽주만 교육연구사-)에 지속적 건의
4. “국사”, “사회” 등 관련교과운영을 통한 2·28민주운동정신 교육
5. 회원가입
 - 전문직·행정직원 중 희망자
 - 초·중등학교 학교장·교감
 - 초·중등학교 교사 중 희망자
 - 초·중등학교 행정직원 중 희망자
6. 2·28민주운동글짓기 공모 참여 지도
7. 교육청·지역교육청·직할기관·교직원 연수

○ 고등학교 협장장학협의회 협조 내용

1. “한국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에 2·28민주운동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책을 채택한 학교
에서의 2·28민주운동정신 교육이 이행되도록 협조 요청
2. 향후 학생들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등학교 내 2·28민주운동 동아리반 실험 운영.
(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2·28스카우트)
3. 2·28민주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고등학생 마라톤 확대 지속적 개최
(8개교 → 가입회원 다수교)
4. 2·28민주운동글짓기 공모 참여
5. 지속적 회원가입 추진
 - 고등학교 신입생
 - 미가입학생 중 희망자
6. 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시 교육청 관계관 협의 후 협의 내용을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 교육감실을 의장과 부의장·사무총장이 찾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0년 교육청 관계관과의 협의 내용 추진 결과와 2011년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2·28민주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양 기관의 협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은 ‘대구의 전통 정신 계승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고생 교육 자료 개발, 고등학생 마라톤 대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창의력 체험활동을 위한 2·28기념관과 명덕초등학교 신축 강당 활용 방안 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본회의 향후 활동 전망을 밝게 해주셨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ㄹ

현재진행형인 '2·28'을 위하여 - 지난 10년간의 글짓기를 돌아보며



이 태 수

시인, 2·28 글짓기 공모 심사위원장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는 이 기념사업회의 사업 가운데 주요 연례행사 중의 하나이며, '2·28'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새롭게 구현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으뜸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첫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는 '2·28'은 이미 반세기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주도했던 세대들도 어느덧 노년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를 생생하게 지켜봤던 세대들에게마저 '2·28'이 기억의 창고에 가뒀지고 있는 형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뜨겁고 숭고한 정신은 언제까지나 살아 숨쉬고, 길이 빛나야 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28'은 단순히 '과거형'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길이 이어지고 새롭게 빛나야 할 '현재진행형'의 값진 정신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이 앞으로 계속, '2·28'의 새로운 주역은 당연히 새로운 세대여야 하며, 그 주역은 언제까지나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신 2·28 기념사업회와 대구시교육청에 새삼 경의를 보내고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글짓기의 심사를 맡아오면서 느낀 바가 실로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응모된 글들을 읽으면서 이 글짓기는 다른 글짓기와는 달리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사실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에게는 '2·28'을 알 길이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 학생들은 대부분이 '2·28'을 모르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설령 기념탑과 기념공원, 경북고등학교 교정에 직접 둘러봤다고 하더라도 이 숭고한 역사적 사실을 어렵듯이 느껴 볼 수 있는 게 고작일 것입니다.

어떤 해는 초등학생들의 응모가 가장 두드러지는 반면 중학생들이 가장 저조하거나 고등학생들의 응모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8'을 알고 글짓기에 참여한다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나 담임교사들의 독려에 힘입어 응모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과 내일의 '2·28 주역'은 초·중등 학생들이지만, 이들을 주역으로 이끌어주는 건 순전히 기성세대들의 몫이며, 기성세대들부터 깨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갈수록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대를 떠올려볼 때 '2·28'의 뜨겁고 숭고한 정신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귀감이 돼야 하고, 그 길트기는 언제나 어른들이 앞장서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와 대구시교육청은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를 통해 지난 10년간 해마다 단행본 300~400쪽 분량의 글을 뽑아 책으로 묶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글이 뽑히지 않았지만 참여한 학생 수를 떠올린다면 그 몇 배 분량의 글을 쓴 학생들이 '2·28'을 가까이 느끼면서 고심해보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이 글짓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 새싹이 움트기 전 / 미처 첫 개나리가 피기도 전 / 차가운 꽃샘바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 오로지 때문지 않은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 그들은 뛰쳐나와 합성을 질렀다. // 그들이라고 사슬이 옥죄지 않았겠는가. / 그들이라고 총칼이 두렵지 않았겠는가. / 그들이라고 칼날 같은 꽃샘바람이 차갑지 않았겠는가, // 하지만 그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부정이었다. /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두려운 것은 불의였다. /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차가운 것은 방관이었다. //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다. //…… <중략> ……// 그것은 차갑고 견고한 하나의 탑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합성 지를 것임을 / 2·28 너희는 기억해다오.”

인용한 글은 지난 2004년 글짓기 공모에 대상 수상작으로 뽑았던 당시 대구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용희 양의 시 「두 개의 2와 한 개의 8에게 보내는 편지」의 부분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찾아 읽어 보았지만 이 경우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이 글짓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집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바로 학생이었던 주역들과 같이 앞으로의 주역들이 '2·28'의 숭고한 정신을 새롭게 빛내고, 이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

다시 읽는 「문예광장」



손 병 현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어느덧 2·28민주의거 50주년이 지났다. 1960년 2월 28일 전후의 일이니 세월이 무상하다 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반세기가 흘렀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중학교 입학 예정자)이었다. 이후 중·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 입학, 군복무, 교직의 입문에서 정년 퇴임까지를 헤아리니 교직생활만 꼭 37년이 된다. 돌이켜 보는 세월이 마치 유년시절에서부터 오늘까지의 보잘것없는 한생애를 반추해 보는 느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28민주의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서술함에 필두를 차지할 고귀한 사상이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숭고한 정신의 발로였다. 마침내 2·28민주의거는 3·15부정선거를 거쳐 4·19학생의거로 이어졌으니 실로 한국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 할 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 갖가지의 정치 형세,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되기도 했었다. 다행히도 2·2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길이 계승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수호하려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어 기념사업회가 결성되고 마침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여기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대구시민의 자긍심이요 나라 사랑의 티없는 마음이라 할 것이다.

2·28민주의거 40주년에 즈음하여 비로소 『햇볕』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숭고한 그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에 비추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뜻있는 여러 인사

들의 협조와 지극한 정성으로 2001. 2. 28.자로 『햇불』 첫얼굴을 대하게 되었다. 뜻과 정성이 어우러져 이제 통권 40호를 만들게 됨에 그나마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다고나 할까. 의거 50주년을 지나며 그 동안 게재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문예광장」을 일별한 소감을 적어 달라는 2·28기념사업회의 청탁에 의해 나의 느낌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한다.

〈2〉

통권 39호에 걸쳐 40여 편의 시와 수필 작품이 각각 실려 있다. 짐작하건대, 대개의 작품들이 청탁에 의한 것들이다. 제재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듯하다. 따라서 2·28민주의거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작품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 평소 시인이나 수필가들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작품을 흔쾌히 기고한 것들이란 생각이 든다. 면면이 살펴니 낮은 시인과 수필가들도 많고 우리 문단의 원로, 중견, 신인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의 내용들이 비록 2·28민주의거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작품을 보내 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2·28민주의거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개의 시인과 수필가들은 우리 대구에서 출생했거나 성장했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고 또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대구에 살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대구는 문단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다른 영역보다 시의 고장이라 할 만큼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현재도 그 명성과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햇불』이 1년에 4회 정도 발행되는 기관지이고 보면 수 많은 우리 대구 문인들의 작품을 모두 게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를 청탁하거나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좋은 작품을 보내 주실 것이란 기대를 가져 본다. 한정된 지면이므로 수필 부문에 대한 소감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고 우선 시 작품에 대한 소감만 적기로 한다.

시인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개성이 뚜렷하여 일정한 제재나 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기대하는 바, 향후 우리 대구의 시인들이 2·28민주의거의 정신을 기리는 시들을 더욱 많이 쓰고 발표했으면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2·28의 정신을 고양한다면 우리의 2·28은 한층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게재된 작품에 대해 일일이 나의 감상을 적는다는 것은 해당 시인들에게는 결례가 되거나 작품의 문학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2·28민주의거를 작품에 직접 반영한 몇 편을 골라 본다.

1960년 2월28일

우리들 오래 잊지 못할 날로

너희들
고운 至誠이
씩어가는 겨레의 가슴 속에서
한송이 꽃으로 향기로울 것이니.

(중략)

지금은 봄
玉梅花 하얀 송이 애편 大韓의 江山에서
三月의 초하루를 추모하는
너희들 學生의 달!

아아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은
저리, 우리들의 太陽이 이글거리기 때문.

- 김윤식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 중에서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그 햇불 온 누리에 화안히 밝힘은
백성의 마음 하늘에 사되는 烽火였으니

겨울은 깊어 막막하여도
봄 나팔소리 천지에 가득 고이면
땅 움켜 쥔 작은 풀들 초록으로 다시 일어서듯
신천에서
무장무장 엮디어 숨죽인 돌맹이 위에
숫구쳐 오르던 함성 아직도 귀를 적시는데…

아아, 그날 2·28
어두우면 함께 모여 얘기하는 별들처럼
이마 찬 아침 열고 비켜서지만
당당한 그 빛은

靑史에 길이 남을
은하수같은 이름이어라

- 장영향 「푸르른 이름 2·28」 중에서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듯이 단순히 작품 그 자체만 두고 읽거나 논하지는 못할 것이다. 위의 두 작품은 2·28민주의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또한 최초의 작품이다. 50년 전의 작품이니 오늘날 시의 경향이나 기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전편에 흐르는 절규의 목소리와 역사의 주체를 기리는 가식없는 정서는 누구나 넉넉히 읽을 수 있다. 더구나 자유당 독재의 서슬이 푸르고 모든 언론 매체들이 숨죽인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진정한 용기와 정의감이 없이는 이런 작품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찍이 선생의 이러한 강직한 정신이 분출되었기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렸다 할 것이다. 칼의 힘보다 筆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영원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소녀야!
나는 너의 젊음 앞세운
위험한 이상주의자이었어
능력도 없이 행운만 추구한
나의 비겁한
내 가슴에다
너의 숭고한 정신 되새겼구나.
오늘도 너의 위대한 젊음 외치던
심심한 네 영혼이 뿌려진
그 길을 서성인다.

소년아!
너의 이름 앞에
이 밤 두근거리며
상한 촛불을 켜들고
너의 푸르른 이름 부른다.
무궁한 꿈을 꾸던 그날
너의 용기가 있었기에

여기 끝나는 이 길이 너의 빛나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 이종선 「너와 함께 숨쉬어라」 중에서

정의에 대한 경외심과 비굴의 자책감이 선명한 작품이다. 그리고 정의의 주체와 젊은 영혼의 거룩함을 외치고 있다. 자신의 양심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자유를 부르짖고 부정부패를 타도하자는 젊은 학도들의 정신을 기리면서도 자신은 한없이 부끄럽고 비겁하다는 자책감의 토로야말로 양심의 표출이 아니겠는가.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를 나무라기는 쉬워도 어른이 젊은이들로부터 깨닫고 배운다는 자세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거듭 깨우치게 된다. 그래서 시인은 ‘싱싱한 젊은 영혼이 뿌려진 길을 서성거리고, 상한 촛불을 켜들고 그들의 푸른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것이다.’

무쇠와 같은 2·28의 다리를 보라
질곡을 헤친 그 어깨를 보라
민주의 꽃에 실린 영광의 종소리에
학창시절의 꿈나무여 그대 청운의 뜻을 펼쳐라.

2·28종소리는 대구의 열이며
그대의 모습은 2·28의 꿈이니
모진 풍상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와 책임의 기상을 배우라.

- 김성현 「2·28 종소리」 중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 피의 빛깔과 그 뜨거움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2·28민주의거의 교훈을 강렬하게 깨우쳐 준다. 그날의 외침과 항거가 시련이 아니라, 반세기 역사 위에 승리의 영광임을 기리고 또 기린다. ‘무쇠와 같은 다리, 질곡을 헤친 어깨, 민주의 꽃이 된 영광’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리 고장 대구의 자긍심이 무엇인가를 웅변적으로 노래하며 당시의 주역들의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길이 이어지길 갈망하는 심경을 몇 번이고 되뇌이게 한다. 당시 명덕로타리 한가운데 우뚝선 2·28기념탑이 지금은 두류공원에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이전되었다. 이제 그날 2·28이 멀지 않다. 그들을 사랑하고 대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달려가 탑신을 어루만지며 그날의 함성을 들

어보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넓이와 무게를 가늠해 볼 일이다.

1960년 대구 학생의거, '2·28 민주운동'
세월은 흘러도 역사는 언제나 오늘에 빛나는 것,
사람은 가도 그날의 정신은 다시금 청춘인 것.
젊은 탐으로 선
달구벌의 두 다리, 2·28의 함성은 영원한 건각이다.

보라, 지금도 으쓱으쓱 비슬산은 치솟고
지금도 꿈틀꿈틀 낙동강은 나아간다.
저 힘은 총천이요, 저 대열은 장장 일도창해다.

기억하라, 불멸의 스크림!
땅의 꼭대기로, 땅의 끝으로 내달라니.
거기
한없이 깊고 푸른 섭리의 하늘이 있다.

- 문인수 「2·28의 함성은 영원한 건각이다」 중에서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반성하고 살피게 하는 동시에 내일을 향한 길을 가르친다. 비록 세월이 흘러 사람은 늙어서 정신이 쇠퇴해도 역사의 기록과 그 주체는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2·28은 늘 청춘이요 늙지 않는다. 삼라만상이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정의를 향한 양심과 용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큰 힘과 빛을 발휘한다는 시인의 신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그날의 현장감과 우리 대구의 지리적 배경을 참신한 비유로 작품의 무게를 배가하고 있다. '거기 한없이 깊고 푸른 섭리의 하늘이 있다' 하니 반세기를 무심히 살아온 우리들 자신이 탐 앞에 부끄러워 이제 2월의 끝날 하늘 아래 정중히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



대구국채보상기념관 건립 기공식

- 기념공원 내 2011년 7월 준공 -

2010년 11월 3일 오후 대구국채보상기념관 기공식이 기념공원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영호 회장, 2·28안인육 공동의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06년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관이 오랜 숙원 끝에 착공을 하게 됐다. 기념관은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1,129평방미터, 바닥 면적 330평방미터 규모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 2011년 7월 건립될 예정이다. ㄱ



최 제 우



민 병 도

그는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았다
보리죽 끓는 마을, 새벽을 깨워놓고
강 하나 가만히 꺾어 물소리로 앉았다

풀잎이 바람에 눕듯 바람 먹은 왕조 위에
그는 손수 못을 박아 한 시대를 붙잡지만
때아닌 자신의 실족, 끝내 잡지 못하고

그는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이 하늘이면 풀벌레도 하늘이라
입다 만 천서(天書)를 덮고 달빛으로 앉았다

*天書: 최제우가 읽고 도를 깨우쳤다는 을묘천서(乙卯天書)

197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중앙시조대상, 가람시조문학상, 한국문학상 등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시문학회, 오류동인
시집 『갈 수 없는 고독』, 『불이의 노래』, 『숨겨둔 나라』, 『슬픔의 상류』, 『내 안의 빈집』, 『원효』 외
<시조21> 발행인.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운영위원

흥부 신발



송복련

너무 많은 것들이 가끔 거추장스럽다. 부
 뚝가의 소문난 집에서다. 푸짐한 조개들을
 앞에 놓고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들이
 비릿한 밤바다에 잠기고, 조개와 돈 그리고
 어부의 노동과 아줌마의 고단한 삶들이 사
 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쌓아놓으면 패
 총이 될 조개더미를 떠올린다.

또 별집 같은 가게마다 재거나 걸어놓은
 그 많은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자동
 차에 실려 가는 소와 돼지의 궁둥이와 케이
 지 속 닭들의 놀란 눈과 마주치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스친다. 내 집이라
 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신발장과 옷장을 열
 면 밀쳐두고 묵혀둔 것들로 비좁다. 진열장
 과 냉장고에도 잊혀진 것들이 수북하다.
 이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한가. 쓰레기
 가 지층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원시시
 대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똥단지같은
 생각을 해 본다

며칠 전 남편이 형겔조각을 찾았다. 조각
 천들은 저마다 단풍잎처럼 고운 얼굴로 주
 인의 손끝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물

빛 조각을 건네며 이거면 되겠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간 뒤 한참 만에 들어온
 그의 손에는 운동화가 들려 있었다. 코앞에
 불쑥 내밀며 어떠냐고 묻는 얼굴이 환하다.
 흰 운동화에는 오리 알만한 감물빛 조각이
 햇바닥을 내밀듯이 뒤꿈치 밖으로 나와 있
 지 않은가. 괜찮다는 말이라도 기대한 것인
 가. 참 엉뚱하기는. 조각보를 만들었다면 예
 술이 되었을 텐데, 양말 볼을 대듯했으니
 어느 짝 일인가. 평소에 어딘가 탈이 난 곳
 에 본드로 잘 붙여서 본드박사라고는 했지
 만 신발에 붙일 줄은 몰랐다. 누덕누덕 기
 운 운동화 같아 보기가 민망해서 흥부신발
 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작 본인은 무척 흐뭇
 한 표정을 짓는다.

가죽은 노쇠한 나귀처럼 윤기를 잃었고 콧
 등에는 굵힌 자국들로 검게 되어 복구할 길
 은 없다. 폭신하게 감싸던 따스함은 사라지
 고 얇고 딱딱하다. 뒤꿈치를 보호하던 천이
 닳아 불편했던 모양이다. 요즈음은 신발을
 잘 만들어서 떨어질 때까지 신기가 어렵고
 싫증이 나서 버리게 된다. 신을 만큼 신었으

니 신발에게 미안할 것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신발을 사야겠다는 말에 멀쩡한 신발을 두고 사려고 한다고 정색을 하며 나무란다. 꼬덕도 않는 그에게 내일 버릴 거라며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로 되받았다.

그가 늘 검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일만 봐도 그렇다. 산소 일로 문중에 회의가 있었을 때, 남보다 먼저 큰 돈을 선뜻 내놓았다. 용돈을 알뜰하게 모은 것이고 나에게 손 벌린 게 아니라며 무척 당당했다. 그 돈이라면 신발을 수 없이 사고도 남는다. 흥부신발 신고 다닌다는 광고를 하겠다고, 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멀쩡한데 쓸데없이 낭비는 안 한다나. 그렇게 알뜰하면 부자가 되었을 법도 한데 돈 버는 일에는 통 관심이 없다. 신문만 하더라도 경제면은 슬쩍 밀쳐 두고 다른 면만 열심히 들여다본다.

가족을 위해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내일 일어나면 버릴 운동화를 바라본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닳고 닳았다. 신은 지나온 길을 어디다 부러두고 이곳에 들어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을까. 운동화가 걸어왔을 길을 생각한다. 직장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가까운 산을 찾고 먼 길을 걷을 때 애용하던 신발이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 위안이 되었을 신발, 이제는 발모양을 따라 거꾸집처럼 발에 꼬옥 맞는 신발. 눈에 익어 정든 세월이 얼마였을까. 편하고 만만하고 익숙한 신발이

서 애착이 더 잦나보다.

화가 나서 뱉어내긴 했지만 흥부에게는 애초에 그런 신발이 없다.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심정을 알기나 하고 그 절박함과 무력감에 비하다니. 흥부의 가난을 조롱조로 이야기 한 것은 가난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를 권하는 사회가 아닌가. 너무 많은 것들에 익숙하다보니 쉽게 버리는 버릇이 내게도 은연중에 배어있었나 보다.

과도처럼 밀려오는 욕망은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뭔가를 자꾸만 쏘아내고 있지만, 가족의 밥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값진 것인가. 사람들이 점점 기계에게 내몰리는 것 같다. 취업문제로 노심초사하는 심정이 어찌라 싶다. 자원을 얻느라 여기저기 마구 들쭉서놓아서 언젠가 지구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을까. 민머리 지구에서 내 아이들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 잉여인간들은 어디로 내몰릴 것인가.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구멍난 생각에 형겅을 덧대어 기워야 할 것은 내가 아닌가. 흥부신발을 내려다본다. 새 신발을 길들이느라 발과 신발이 부대끼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가 되었을 텐데. 세월을 견뎌낸 내 육신처럼 험겍과 누추한 모습과 닮았다. 세상이 다들 새것만 고집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설 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제 뭍이 있는 것 같아 슬그머니 제 자리에 두고 만다. ▮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대구문협 회원. 수필과 지성 문예아카데미 원장 역임.
달구벌수필 동인. 수필집 「완성된 여자」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 편찬위원회



2010. 10. 19. 2·28사무실에서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을 위한 7번째 편찬위원회(위원장 홍종흠)를 개최하고 책자발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홍종흠 위원장, 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이완식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김약수 감사, 박명철 사무총장)

매월 28일 오후 2시 28분
대구 현대오케스트라에서 2·28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대구명덕네거리 2·28기념탑 표석 앞 -

2·28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며 4·19혁명의 출발점인 2·28대구학생 의거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음악을 통하여 2·28정신 계승과 사회계몽 차원의 일환으로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20여 명의 봉사단원(대표 최흥기)들이 매월 28일 오후 2시 28분 대구명덕네거리 2·28기념탑의 표석이 있는 곳에서 선구자 등 2·28학생 의거를 기리는 연주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가 개최하는 2·28기념음악회는 2010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2·28일지

- 10. 13. 서지 김윤식 시비 제막식(경산시 남매공원) 참석(안인욱 의장, 홍종흠 고문, 박명철 사무총장)
- 10. 19. 제7차 임원회의(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권국현 부의장, 장영향 부의장, 이방현 이사, 김약수 감사, 박명철 사무총장)
- 10. 20.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예방, 국과장업무협의(안인욱 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0. 21. 푸른방송 인터뷰(안인욱 의장)
- 10. 21. 대구광역시교육청 한도시책입기 선포식 참석, 교육청대강당(안인욱 의장)
- 10. 23. 2·28 50주년기념 고교생 마라톤 대회(두류공원, 1,011명 참가)
- 11. 1. 서부교육지원청 직원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특강(안인욱 의장)
- 11. 3. 국채보상운동 기념회관 건립 기공식 참석(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1. 12. 대구일보 사업국장내방 업무협의
- 11. 17. 4·19 제50주년기념사업회(회장 이기택) 4·19혁명표식 제막식(대구중앙로, 중앙파출소 옆) 안인욱 의장, 김명환 이사, 서돈수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참석)
- 11. 20. 제10차 2·28민주포럼(대구은행본점 3층 회의실, 안인욱 의장외 75명)
- 11. 25. 2·28민주운동정신계승 교육관련협의회 개최(지역교육청 교육국장, 고등학교 현장장학협의회 회장, 교육청 김사철 교육과정운영과장, 박해주 총무과장, 안인욱 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2. 7. 햇불 40호 편집회의(김약수 위원장, 안인욱 의장, 장영향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2. 14. 신암초등학교 교원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특강(안인욱 의장)
- 12. 20. 2·28민주운동기념사업50년 자료집 발행 편찬위원회 개최
(2·28사무실, 홍종흠 위원장, 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백진호 부의장, 양정봉 위원, 박명철 간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39호 23쪽 7행 ‘임용대’ 를 ‘임대용’ 으로, 8행 ‘중남’ 을 ‘중화’ 로 바로 잡습니다.

(사)산학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 거행

(사)산학연구원(이사장 최용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은 2010년 12월 8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호텔인터불고 대구 본관 1층 클라벨홀에서 기업인, 교수 및 유관기관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행사에 앞서 TBC 대구방송과 공동으로 ‘2010년 대구경북 사회공헌기업’ 시상식을 가졌으며, 기념세미나에는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기술사회의 직각변동과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또한 개원 20주년을 맞아 연구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화연 전 대구은행장에게 감사패를,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등 연구원 임직원 4명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지난 20년간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산학연구원은 현재 3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60여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산업시찰, 경영진단 및 자문, 연구업적물의 간행, 경영자 및 종업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회원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



제1회 대한민국 동부민요 전국경창대회 개최

동부민요보존회 연수원

대한민국동부민요보존회(회장 박수관 명창, 2·28기념사업회 이사)는 지난 2010년 12월 12일 오전 9시, 경북 경주시 황룡동에 있는 동부민요보존회 연수원에서 “제1회 대한민국동부민요 경창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경창신청자 100명을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회는 함경도·강원도·경상도 지역의 민요인 동부민요의 보존, 전승, 보급발전을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대한민국동부민요보존회가 주최하고 동부민요보존회와 GBN경북방송이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김정길 대구예술대학교총장과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과 민요 애청자와 보존회 연수원생들이 참석한 이날, 동부민요보존회 박수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부민요보존회가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창대회가 역사 깊은 이곳 옛 신라 고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말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민요를 사랑하는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경창대회 입상자는 학생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문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동부민요회장상, 경북도의회의장상, 대구예술대학교총장상, 경주시장상, 경북도교육감상 등이 수여되었다. ▮



2010년도 2·28회원 가입 현황

2010년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맞이하여 본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해 준 학생·교사·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12월 30일까지 가입한 회원 현황은 아래(개인회원 5609명, 이사 98명)와 같습니다.

회원 가입 현황

2010. 12. 30. 현재

| 연번 | 가입연월일 | 단체 · 개인 | 인원수(명) | 금액(원) | 비고 |
|----|--------------|------------------------|--------|-----------|----|
| 1 | 2010. 1. 14. | 서대구농협 이영목 외 17명 | 18 | 240,000 | |
| 2 | 1. 22. | 대구농고 48회 황태웅 외 9명, 이강사 | 11 | 110,000 | |
| 3 | 1. 22. | 오명옥(평광주택건설 대표이사) | 1 | 1,000,000 | |
| 4 | 1. 28. | 대구고등학교 학생 28명 | 28 | 28,000 | |
| 5 | 2. 11. | 대상(대구상원고등학교) 학생 452명 | 452 | 452,000 | |
| 6 | 2. 13. | 권은자 | 1 | 10,000 | |
| 7 | 2. 18. | 김두환 | 1 | 10,000 | |
| 8 | 2. 25. | 배철곤, 백승교 | 2 | 40,000 | |
| 9 | 2. 25. | 대경어린이교통안전교육원 | 1 | 100,000 | |
| 10 | 2. 25. | 육일회 | 1 | 1,000,000 | |
| 11 | 2. 26. | 최우섭 | 1 | 100,000 | |
| 12 | 3. 2. | 박오균 | 1 | 20,000 | |
| 13 | 3. 11. | 경북중고 42회 권준화 외 19명 | 20 | 200,000 | |
| 14 | 4. 6. | 화원고등학교 교사 9명, 학생 276명 | 285 | 366,000 | |
| 15 | 4. 7. | 서원기(전. 남부도서관장) | 1 | 10,000 | |
| 16 | 4. 12. | 황광주(CMB대구동방송 대표이사) | 1 | 10,000 | |
| 17 | 4. 20. | 정위분, 서경희, 박춘자 | 3 | 30,000 | |
| 18 | 4. 21. | 주웅영 외 12명 | 13 | 130,000 | |
| 19 | 4. 23. | 김태홍 | 1 | 20,000 | |
| 20 | 4. 27. | 이연수, 문상호, 김은하 | 3 | 30,000 | |
| 21 | 4. 29. | 대구공고 학생 314명 | 314 | 314,000 | |
| 22 | 5. 3. | 경신고 학생 605명 | 605 | 605,000 | |
| 23 | 5. 6. | 조홍근 | 1 | 10,000 | |
| 24 | 5. 10. | 조여화, 정성진, 조동현, 서창호 | 4 | 40,000 | |
| 25 | 5. 11. | 대구공고 학생 34명 | 34 | 34,000 | |
| 26 | 5. 19. | 대구고등학교 학생 358명 | 358 | 358,000 | |

| 연번 | 연월일 | 단체 · 개인 | 인원수(명) | 금액(원) | 비고 |
|----|--------------------------|---|--------|------------|----|
| 27 | 5. 25. | 대구명덕초등학교 교직원 8명 | 8 | 80,000 | |
| 28 | 6. 1. | 경북고등학교 교사 6명, 학생 538명 | 544 | 598,000 | |
| 29 | 6. 1. | 대구여고 학생 317명 | 317 | 317,000 | |
| 30 | 6. 4. | 반정옥 | 1 | 10,000 | |
| 31 | 6. 8. | 박준형 | 1 | 10,000 | |
| 32 | 6. 11. | 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학생 384명 | 384 | 384,000 | |
| 33 | 6. 22. | 지국현, 송희선 | 2 | 20,000 | |
| 34 | 7. 7. | 대구경북여자고등학교 교사 7명 | 7 | 80,000 | |
| 35 | 7. 7. | 대구경북여자고등학교 학생 508명 | 508 | 508,000 | |
| 36 | 7. 13. | 대구상원고등학교 학생 312명 | 312 | 312,000 | |
| 37 | 7. 20. |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 335명 | 335 | 335,000 | |
| 38 | 7. 21. | 권근상 | 1 | 10,000 | |
| 39 | 10. 19. | 박창국, 김종권 | 2 | 20,000 | |
| 40 | 10. 20. | 우동기 교육감 | 1 | 200,000 | |
| 41 | 10. 20. | 이걸우 부교육감, 송덕준, 이병하 | 3 | 30,000 | |
| 42 | 10. 27. | 김종보 | 1 | 10,000 | |
| 43 | 10. 28. | 정병무 | 1 | 10,000 | |
| 44 | 11. 17. | 김성태 | 1 | 10,000 | |
| 45 | 12. 21. | 조일공업고등학교 김영옥 교장 외 교사 9명 | 10 | 100,000 | |
| 46 | 12. 22. |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1학년)학생 450명 | 450 | 450,000 | |
| 47 | 12. 24. | 보성회 조팔제 외 5명 | 6 | 60,000 | |
| 48 | 12. 24. |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1학년) 학생 315명 | 315 | 315,000 | |
| 49 | 12. 29.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70명 | 70 | 700,000 | |
| 50 | 12. 30. |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55명, 학생 569명 | 624 | 961,000 | |
| 51 | 2010. 1. 21. ~12. 31. | 강모인 곽정남 곽정돈 권국현 김광백 김광홍 김교원 김구원 김길식 김명구 김명환 김무구 김상숙 김석희 김약수 김옥화 김영수 김용서 김용웅 김유조 김익환 김재홍 김정길 김정용 김종규 김종보 김종인 김중기 남중화 박규하 박대근 박수관 박 원 박중남 백승대 백진호 서보경 서성구 서성욱 신한익 안기성 안영호 안윤식 안인옥 안택수 양구춘 양성호 양승을 양정봉 오승원 우영주 우윤택 유명하 윤병우 윤수동 윤정묵 윤차수 이광조 이근창 이등용 이문웅 이방현 이복웅 이수광 이순조 이양강 이영기 이완식 이원순 이정순 이해봉 이현세 이현희 이희영 장만수 장무웅 장영향 장주효 장진영 전건식 전병조 정석재 정태일 정현치 조민규 조삼승 조상철 조 암 차용조 최남열 최덕수 최세탁 최용호 최우섭 허노목 홍광희 홍덕률 홍사만 | 98 | 11,110,000 | |
| 계 | | | 6,163 | 21,907,000 |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현황

(1999. 6. 1. ~ 2010. 12. 30. 현재)

| 회원 | 입회 연월일 | 소 속 | 회원수(명) | 금액(원) |
|---------|-----------------|----------------|--------|-------------|
| 단 체 | 1999. 6. 1. 이후 | 2·28기념사업회 단체회원 | 124 | 162,065,000 |
| 개 인 | 1999. 5. 22. 이후 | 2·28기념사업회 일반회원 | 7,015 | 50,992,000 |
| | | 교수 | 82 | 750,000 |
| | | 교사 | 514 | 5,140,000 |
| | | 대학생 | 38 | 100,000 |
| | | 경북고등학교 | 6,437 | 6,437,000 |
| | | 대구고등학교 | 6,043 | 6,043,000 |
| | | 경북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4,073 | 4,073,000 |
| | | 경신고등학교 | 3,511 | 3,511,000 |
| | |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 2,986 | 2,986,000 |
| | | 대건고등학교 | 2,468 | 2,468,000 |
| | | 대구대진고등학교 | 321 | 321,000 |
| | | 대륜고등학교 | 107 | 107,000 |
| | | 도원고등학교 | 85 | 85,000 |
| | | 계성고등학교 | 68 | 68,000 |
| | | 영남고등학교 | 75 | 75,000 |
| | | 다사고등학교 | 55 | 55,000 |
| | | 시지고등학교 | 55 | 55,000 |
| | | 대구상원고등학교(대구상고) | 2,596 | 2,596,000 |
| | | 대구공업고등학교 | 1,981 | 1,981,000 |
| | | 대구고부설방송통신고 | 605 | 605,000 |
| | |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 569 | 569,000 |
| |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542 | 542,000 |
| | |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 | 150 | 150,000 |
| | | 경북여자고등학교 | 3,310 | 2,802,000 |
| | | 대구여자고등학교 | 2,258 | 2,766,000 |
| | | 경덕여자고등학교 | 286 | 286,000 |
| | |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 1,320 | 1,320,000 |
| | |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 813 | 813,000 |
| 화원고등학교 | 276 | 276,000 | | |
| 성명여자중학교 | 6 | 18,000 | | |
| 이 사 | 2001년~2010년 | 2·28기념사업회 이사 | 237 | 49,390,000 |
| 총 계 | | | 49,006 | 309,445,000 |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대학”

예술교육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구예술대학교

차별화된 미국식 커리큘럼 _ 교육이 앞서갑니다!
(주)세기스타 세기보청기 경영 _ 재단이 든든합니다!
3Believe 프로그램 _ 취업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은 60년만에 바뀌었지만

대구예술대학교는 6개월만에 확 바뀌었고

앞으로 더 새롭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3Believe 프로그램

Believe ① 취업·창업에 앞서는 대학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4년간 책임관리 / 컴퓨터교육 강화 / 정보화교육 강화
 초·중·고 예술강사 취업을 위한 실기교사 자격증(무예교직)

Believe ② 실력, 예절, 인성, 의지력을 중점적으로 기르는 대학

문화·예술 해피봉사활동 / 졸업인증 영어시험제도 / 봉사활동 필수과목 선정
 영어 회화 필수과목 선정

Believe ③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대학

신입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 3+1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
 글로벌 리더 유학생제도 프로그램 / 전공별 우수인재 유학 프로그램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Global Action Project - 영어교육 강화 프로그램 / 외국어 교육원 / 영어단강사 초빙 교육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 입학상담, 본 교 : 054(970-3191, 3158) Fax : 054(970-3198)
 대구교육관 : 053(743-8915) Fax : 053(743-89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gau.ac.kr

▶ 입학특전

신입생 해외연수 / 단기어학연수 / 3+1 해외대학 교류 / 전공별 우수인재 유학 프로그램 /
 해외문화탐색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과 상호교류 프로그램 / 영어교육 강화 프로그램 /
 영어연말사 초빙 / 컴퓨터교육 강화 / 교대실기(교사자격증) / 우수인재 아티스트장학금 지급 /
 글로벌 리더 유학 장학제도

☎ 054-970-3191(총무) 054-970-3158(대우) 054-970-3198(교육) 053-743-8915(교육) 053-743-8916(교육)

글로벌 기업재단과 함께 세계적 예술명문으로 도약하는 대구예술대학교!



희망이 함께 희망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당신의 희망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희망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신의 희망과 지역경제가 함께 더 크게 커져갈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경제의 작은 희망이 되겠습니다.